

건축, 사회적 균형 해결의 열쇠

Architecture, Key for the social equilibrium

글. 백민석 · 본지 편집국장

산업화가 한참 진행 중인 시절엔 인구가 곧 국가 경쟁력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재산이 2016년엔 출생자수가 역대 최저라고 모두들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이슈임에도 당장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의 결혼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덩달아 신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고의 틀을 깨는 획기적 대책 없이는 사회의 존립 기반마저 뒤흔들 인구 절벽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인구는 한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저출산(低出產) 대책 관련 예산으로 80조 원 가까이 투입했지만 이 기간 출생아 수는 오히려 42만 명이나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정부 저출산 대책이 헛바퀴를 돈 것은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거나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산을 제고는 정부만 나서서 될 일이 아니고 사회의 모든 영역이 동참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출산 적령기 사람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것입니다. 한 언론의 리포트는 주거 문제를 근원으로 청년들의 결혼유예, 비혼(非婚),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인구절벽의 악순환이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소비심리 자극에 의한 과도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집주인들은 전세가 아닌 반전세·월세를 늘렸고 결국 임대주택이 필요한 청년 세대들이 집주인들의 대출 이자를 떠안은 셈이 됐습니다. 2년마다 주거비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혼인·출산을 계획하기 어렵고 연간 출생아 수는 바닥을 쳤습니다. 흔히 주택을 결혼의 장애물이라고만 얘기하지만 혼인·출산의 초기 비용이라고 봐야 합니다. 혼인·출산을 장려하려면 주거 안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또한 주거 문제를 부동산 문제로만 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의 역동성을 되찾으려면 출산과 보육은 물론 주택, 교육, 노동, 산업정책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과 헌법에 의해 파면된 날, 르 코르뷔지에 전시회에서 마주한 글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위대한 시대는 드디어 시작되었고 그곳에는 새로운 정신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와 사회적 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건축에 있습니다.”

이제는 동 시대를 살아가는 건축사로서 주거·출산·보육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위대한 시대는
드디어 시작되었고
그곳에는 새로운 정신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와 사회적 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건축에 있습니다”

Le Corbusier